

## 지역 당선인들 22대 국회 상임위 '물밑 경쟁'

국회 개원후 상임위 배정에 '관심' 광주·전남 현안사업 추진 큰 영향 광주, 법사위·산자위 등 고루 희망 전남, 10명중 5명 농해수위 '쏠림' 김영록 "상임위 고루 배치되길"

제22대 국회 개원을 약 2개월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당선인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18명의 당선인들이 어느 상임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 추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당선인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살린 상임위 배정을 희망하고 있으며, 광주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남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 배정은 각 당 원내대표의 결정에 따르지만 각 당선인들의 전문 분야와 지역구의 성향에 따라 특정 상임위로 희망자가 쏠리기도 한다.

광주에서는 산자위와 법사위 희망자가 많았다.

동남갑 정진욱 당선인과 서구갑 조인철 당선인은 산자위 배정을 희망했다. 산자위는 국비 사업 및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산업 정책 등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한 각종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로 의원들의 선호한다.

법조인 출신인 서구을의 양부남 당선인과 광산갑의 박군택 당선인은 자신들의 '특장점'을 살려 법사위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당선인은 부산고검장, 박 당선인은 법무연수원장 출신으로 두 사람 모두 오랜 기간 동안 법조인으로 활동해왔다.

과거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내 '경제통'으로 통하는 동남을의 안도걸 당선인은 기획재정부위원회 배정을 희망했다.

북구갑 정준호 당선인은 변호사로 오래 활동해 온 경력을 살려 국무총리실과 금융감독원 등 전반적인 국가정책 등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무위를 고려하고 있다.

북구를 전진숙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을 감안해 건설·교통망 확충을 도모하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지역 의료문제 해결과 직결된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을 원한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광산을 민형배 당선인은 "아무래도 지역 내 재선 의원이 저뿐이다 보니 다른 지역구 당선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큰 이변이 없다면 이번 임기에서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그대로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남의 경우 상임위가 지역현안 및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의식'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세월호가 거치돼 있는 목포 신항만에서 열린 '목포 기억식'에서 유가족과 추모객 등이 현화하고 있다.▶관련기사 4면 나건호기자

농해수위에 대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총 10명의 당선인 중 여수시갑 주철현,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고흥보성장흥강진 문금주, 나주화순 신정훈, 담양함평영광 장성 이개호 당선인 등 5명이 농해수위 배정을 희망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구가 농업·수산업 등

1차산업에 특성화돼 있는 만큼, 지역 현안 중 많은 부분이 농해수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농해수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최다선이자 최고령으로 '올드보이'의 귀환을 이룬 해남안도진도의 박지원 당선인은 과거 국경원장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정무위나 법사위로 배정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국회의원 임기 중 12년을 법사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살려 지역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또 정무위에 배정이 된다면 개혁된 국정원이 후퇴하지 않도록 '파수꾼' 역할을 해내고 싶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곽지혜·김은지 기자

## 광주 2개·전남 4개대,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통과

전남대 단독·광주보건대 연합체 목포대 단독유형 예비지정 선정 연합유형, 동신·초당·목포과학대

대학30 예비지정 평가 결과 광주 2개, 전남 4개 대학 등 전국 33곳(20건)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올해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단독·공동으로 신청한 65곳 중 20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신

청 109개교 중 33개교가 포함됐다.

광주는 지난해 본지정 문턱을 넘지 못한 전남대학교가 단독 유형으로 예비지정 자격을 유지한 채 명단에 올랐다. 연합 유형으로는 광주보건대학교가 대구·대전보건대와 초광역 연합체를 구성해 선정됐다.

전남은 목포대가 단독 유형으로 예비지

정 됐으며 연합 유형에서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가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예비지정 대학은 오는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한 '실행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는 대학 실행계획서에 대해 본지정 평가를 거쳐 오는 8월 말 최종 2년 차 글로벌대학 1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글로벌대학30'은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Global+Local, 글로벌) 목표로 오는 2026년까지 30곳을 선정해 5년간 국고 100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의 과거 대학재정지원사업 중에 단일대학 지원액으로 최대 규모다. 지난해 본지정 평가에선 순천대학교를 포함한 국·공립 7곳, 사립 3곳 등 14개교가 글로벌대학 10곳으로 선정된 바 있다. ▶관련기사 5면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G  
L  
O  
B  
A  
L

#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5. 29. 수 ~ 6. 2. 일

여수세계박람회장

미래교육 콘퍼런스

미래교육 전시

미래교육 교류

미래교육 축제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

주최·주관  
교육부

후원  
전라남도교육청

후원  
전라남도교육청

후원  
강상북도교육청

후원  
여수시